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 :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이성식**

초 록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청소년비행의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의 하나로 평가된다. 또한 낮은 자기통제력도 그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지지된다. 이 연구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영향을 중심으로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일반이론, 발전이론, 그리고 모핏의 이론의 상대적 우위를 검증한다. 청소년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낮은 자기통제력보다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더 크고 특히 중비행의 경우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비행친구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발전이론을 지지했다. 또한 모핏의 논의와는 반대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후기진입자의 지위비행을 잘 설명했고, 초기진입의 중비행에 있어서는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낮은 자기통제력, 비행친구, 청소년비행, 발전이론

* 이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지원받았음.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부교수

I. 서 론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and Hirschi, 1990)의 일반이론은 청소년비행 연구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론 중 하나이다. 이 이론은 비행 및 범죄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그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설명력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Pratt and Cullen, 2000; 민수홍, 2006). 일반이론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비행의 유일한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자기통제력은 어려서 형성되는데,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어릴 때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의 성향은 변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성인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비행과 범죄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이론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다른 요인들은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낮은 자기통제력만이 유일한 원인인가?

그러나 소위 발전이론(혹은 생애과정론)에서는 청소년비행을 설명함에 있어 어릴 때 형성된 성향 이외에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의 환경의 변화를 강조했다(Loeber and LeBlanc, 1990; Sampson and Laub, 1993). 즉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정, 학교생활, 친구관계가 어떠한지가 비행의 지속, 발전 혹은 중단에 결정적인 요인이 됨을 강조했다. 이처럼 발전이론은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의 환경변화의 요소를 통해 청소년비행을 설명하고자 했다. 아마도 그 중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즉 어려서의 성향과 관계없이 청소년성장기에 비행친구와 자주 만나고 어울리는 아이들이 비행을 더 저지른다는 것이다(Paternoster and Brame, 1997; Simons et al, 1998; Chapple, 2005). 이러한 발전이론의 주장은 앞서 낮은 자기통제력만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는 일반이론과 대치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일반이론과 발전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과연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청소년비행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상호비교하면서 살펴 보려고 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청소년비행자를 생애지속 비행자와 청소년한정 비행자로 나누어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모두 인정한 모핏(Moffitt, 1993)의 중도적 입장도 고려해 보려고 한다.

그동안의 국내 연구는 주로 1회 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점에서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었다. 여기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낮은 자기통제력, 비행친구와의 접촉, 비행의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하는데, 이처럼 이 연구는 그동안의 청소년비행 연구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을 일반이론과 발전이론, 그리고 모팻의 논의를 중심으로 청소년패널자료를 통해 검증하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일반이론과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

갓프레드슨과 허쉬(1990)의 일반이론은 최근 들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론 중 하나이다. 이 이론에서는 어릴 때 형성된 자기통제력이라는 내적 성향 요인이 어려서의 다양한 문제행동, 그리고 청소년비행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범죄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의 이론이 일반이론이라 불리는 이유는 모든 연령층이외에 모든 국가나 문화권에 적용되며, 이 이론이 사소한 문제행동이나 재산, 폭력범죄 및 약물남용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비행과 범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그러한 내적 성향이 어릴 때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즉 그것은 어릴 때 부모의 양육방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부모로부터 감독이 소홀하거나 애정 결핍 속에, 무계획적 생활습관이 방치되고, 잘못된 행동에 제재가 없이 자란 아이들은 내적 통제력이 낮아 우연한 기회에 우발적이고도 충동적으로 쉽게 비행에 빠져들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어릴 때 형성된 자기통제력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성향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보이고 청소년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결국 어려서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이 모든 연령층의 범죄에 있어서 그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낮은 자기통제력이라는 내적 성향이 범죄의 유일한 설명원인이 된다고 보면서 기존의 사회통제이론이나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에서 강조되었던 사회유대나 비행친구들의 영향을 부정했다. 그들에 따르면 범죄나 사회유대의 약화,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은 모두 낮은 자기통제력이라는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되는 결과라고 보았으며, 자기통제력을 통제할 경우 사회유대 요인이나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허위관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일반이론은 그 동안의 연구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와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이 비행이나 범죄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이 제시되어 왔다(Grasmick et al., 1993; Wood et al., 1993; Gibbs and Giever, 1995; 민수홍, 2006). 또한 자기통제력은 비행이외에 사회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유대, 비행친구 요인들과 독립적으로 비행과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있어 왔다(Nagin and Paternoster, 1993; Evans et al., 1997).

2. 발전이론에서의 비행친구 영향과 그 경험연구들

그러나 청소년비행이 청소년시기의 가정, 학교와의 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상관없이 어릴 때의 성향에 의해서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는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발전이론은 어렸을 때의 경험도 중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으로의 성장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를 중시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 이론이다(Loeber and LeBlanc, 1990; Sampson and Laub, 1993). 즉 갓프레드슨과 허쉬가 어릴 때 형성된 자기통제력만을 중시하여 낮은 자기통제력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비행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발전이론가들은 그러한 아이가 어떻게 하여 더욱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하게 되는지를, 그리고 또한 어떤 아이들은 무슨 이유로 비행과 범죄를 중단하여 평범한 아이로 되는가를 설명하고자 했다.

발전이론은 그러한 요인들을 제시함에 있어 기존 사회통제이론과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에서 강조되었던 다양한 사회환경요인들을 강조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샘슨과 라우브(Sampson and Laub, 1993)는 사회통제이론에 기초하여 사회유대의 영향력

을 강조한 대표적 발전이론가이다. 그들에 따르면 어려서 문제행동을 보였던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혹은 보다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그들의 어려서의 경험들이 사회와의 유대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비행친구와의 접촉도 청소년비행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가들은 비행친구와 접촉할 때 비행에 호의적인 태도를 학습하게 되고 혹은 모방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보아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보았는데, 비행친구의 영향은 국내외적으로 청소년비행의 가장 강력한 요인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Akers, 1985; War and Stafford, 1991; Matsueda and Anderson, 1998; 이성식, 1999; 노성호, 2006).

이 이론에 기초한 발전이론가는 어려서의 성향과 독립적으로 성장기의 비행친구와의 접촉 경험이 청소년비행에 중요한 원인이 됨을 강조했다. 시몬즈와 동료들의 연구(Simons et al., 1998)에서는 어려서 문제행동의 징후가 있었던 아이들이 가정,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고, 비행친구가 사귀게 됨으로 해서 차후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는데, 특별히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제시했다. 패터노스터와 브레임(Paternoster and Brame, 1997)의 연구에서는 어려서의 낮은 자기통제력도 그 원인으로 중요했지만 그 영향력이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했던 반면 청소년기의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p < .001$ 수준에서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했고, 보다 최근의 채플(Chapple, 2005)의 연구에서도 어려서의 자기통제력도 청소년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그 영향은 $p < .05$ 수준이었고, 그보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보다 강력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낮은 자기통제력의 아이들이 비행친구와 접촉하기 쉽고 그럼으로써 비행을 더 저지른다는 주장을 했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사회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제하였을 경우에도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직접적이었듯이 일반이론과 발전이론이 모두 지지되어 청소년기 혹은 성인초기의 비행과 범죄는 안정된 성향으로서 자기통제력이 외에 사회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 모두가 중요한 설명요인이 됨을 제시하고 있다(Evans et al., 1997; Wright et al., 1999; Baron, 2003). 그렇지만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그러한 사회환경요인들에 의해 어느 정도 매개되며, 심지어 일반이론의 주장과 달리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완전히 매개되어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갖는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Simons et al., 1998; 이성식, 2001; Longshore et al., 2004).

3. 모팻의 중도적 논의

모팻(1993)의 이론은 비행자를 생애지속 범죄자와 청소년한정 비행자 두 집단으로 나누어 설명한 점에 특징이 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어려서 가정에서의 부적절한 양육관리와 부주의(어머니의 약물, 영양부족, 학대 등)로 인한 신경계의 손상으로 언어, 학습능력의 부족, 인지기능의 저하,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 충동적이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성향이 있게 되면 그러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하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초기진입의 생애지속 범죄자들은 비행청소년 중 소수를 차지하며 주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은 후기진입의 청소년한정 비행청소년인데, 그들은 성장기에 아이와 성인사이에 애매한 지위를 갖고 역할공백을 경험하는 가운데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성인의 역할을 갈망한다고 했다. 그러한 청소년들은 주위의 지속범죄자들이 독자성과 성인역할을 향유하는 것을 목격하고 지속범죄자들의 행위를 모방하는 가운데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청소년은 청소년기에 한정해서 비행을 저지를 뿐이며, 그것도 어른 지위와 관련한 흡연, 음주, 성관계 등 사소한 지위비행을 주로 하며, 성인이 되어서는 곧 비행을 중단한다고 했다.

모팻은 이처럼 아동기나 청소년 초기때부터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의 경우 그것은 인지기능의 저하나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내적 성향에 의해 비행을 저지른다고 보았으며, 이때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요인은 비행의 원인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시작하여 저지르는 비행의 대부분은 한정비행자에 의한 것으로, 비행친구로부터의 모방에 의해 비롯된다고 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행친구와 자주 접촉하는 아이들이 비행을 더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이론과 발전이론의 중도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성향만을 강조한 일반이론은 초기진입 청소년의 비행의 설명에 적합하며, 대부분의 청소년비행인 후기진입 한정비행자의 비행의 경우는 발전이론의 논의대로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요인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연구들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어, 예를들어 바투쉬와 동료들의 연구(Bartusch et al., 1997)에서는 9-10세의 초기진입 비행의 경우는 개인성

향의 요인들이 중요했지만, 그 이후의 13-15세의 후기 연령집단의 경우에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요인이 주요 요인이었음을 제시했다. 국내의 연구로 이순래의 연구(2005)에서도 지속비행에 있어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컸지만 후기진입 한정 비행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대신 비행친구의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후기진입의 비행의 경우 비행친구의 영향이 중요했지만 초기진입의 심각한 비행의 경우도 낮은 자기통제력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Simons et al., 1994; Paternoster and Brame, 1997; 이성식, 2001). 이러한 결과는 패터슨(Patterson, 1989)의 논의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초기진입자와 후기진입자를 구분하여 다루었지만 모팻과 달리 초기진입자의 비행을 설명함에 있어 지속적 성향이외에도 비행친구의 영향이 또한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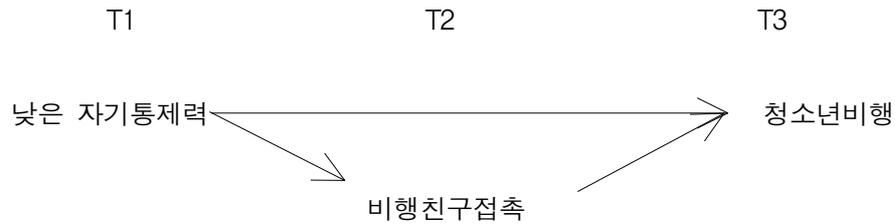
III. 연구가설과 방법

1. 연구가설

이 연구는 일반이론과 발전이론에 기초하여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과연 일반이론대로 자기통제력만이 비행의 유일한 원인이 되는지, 발전이론대로 자기통제력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해 매개되는지, 아니면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 모두가 청소년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의 이론들간의 우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특별히 이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초기진입자와 후기진입자에 따라 다르다는 모팻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과연 초기진입의 지속비행의 경우는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크고, 후기진입의 청소년비행의 경우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크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2004년도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하기로 하며, 1차(T1) 자료이외에 2005년도, 2006년도에 실시했던 2

차(T2), 3차(T3) 자료를 사용하기로 하는데, 본 연구의 기본모델과 가설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연구모델

- 가설 1 : 낮은 자기통제력은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때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청소년비행과는 허위관계가 될 것이다(일반이론).
- 가설 2 :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해 매개될 것이며, 낮은 자기통제력은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가질 것이다(발전이론).
- 가설 3 : 낮은 자기통제력은 청소년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그 영향력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낮은 자기통제력 뿐만 아니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통합이론).
- 가설 4-1 : 낮은 자기통제력은 초기진입자의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반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후기진입자의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모뎬의 중도이론).
- 가설 4-2 :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후기진입자의 비행뿐만 아니라 초기진입자의 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패터슨의 이론).

한편 모핏의 논의대로라면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어려서부터 비행성향을 갖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초기진입자와는 달리 자기통제력이 어느 정도 높은 후기진입자의 비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상호작용효과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들을 보면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각각 독립적으로 뿐만 아니라 청소년비행의 필요충분조건의 요인이 되어 낮은 자기통제력의 아이들이 또한 비행친구와 접촉할 때 더욱 청소년비행을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Simons et al., 1994; Wright et al., 2001), 이 입장에서 보면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상호작용효과는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상반된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 가설 5-1 :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상호작용효과는 부(-)적으로 유의미할 것이다(모핏의 중도이론).
- 가설 5-2 :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상호작용효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할 것이다(통합론적 중도이론).

한편 여기서는 종속변수의 청소년비행을 경비행과 보다 심각한 중비행으로 나누어 다뤄보기로 한다. 모핏의 주장에 따르면 초기진입의 지속비행 청소년들은 보다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지만 후기진입의 청소년들은 주로 사소한 지위비행의 경비행을 저지른다고 보며 또 이후 연구들에서도 그 주장은 지지되고 있기 때문이다(Moffitt, 1993; Nagin et al., 1995; Lipsey and Derzon, 1998). 모핏의 논의대로라면 후기진입자의 단순한 지위비행은 자기통제력의 성향요인과 큰 연관이 없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해 보다 더 잘 설명될 것이지만, 보다 심각한 중비행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성향을 가진 초기진입 지속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패터슨을 비롯한 그동안의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청소년들의 심각한 중비행에 있어 중요한 설명요인이 된다는 논의가 많은데, 이 입장대로라면 모핏과는 달리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중비행에 있어 중요할 것이라는 상반된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비행유형별로 원인이 다를 것이라는 이러한 예측은 일반이론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일반이론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가설 6-1 : 낮은 자기통제력은 초기진입자의 중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반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후기진입자의 경비행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이다(모팻의 중도이론).
- 가설 6-2 :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후기진입자의 경비행뿐만 아니라 초기진입자의 중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패터슨의 이론).
- 가설 6-3 : 낮은 자기통제력은 경비행과 중비행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비행과 허위관계일 것이다(일반이론).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개발원에서 수집한 중학생 2학년 대상의 2004년도 1차 자료와 2005년도의 2차, 2006년도의 3차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1차 자료는 다단계 층화집락표집에 의해 3,449명을 수집하였으며, 3차 자료는 동일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도함에 있어 여러 사유로 중도 탈락한 학생을 제외하고 3,125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삼았다(이경상, 김기현, 2006).

종속변수로 다룰 청소년비행은 3차년도의 자료에서 선정하였는데, 여기서는 경비행과 중비행을 구분하여 다룬다는 점에서 경비행은 지위비행에 해당되는 흡연, 음주, 무단결석의 세 문항의 경험여부를, 중비행은 폭행, 절도, 강도의 세 문항의 경험여부를 사용하기로 하며, 각각의 문항을 합산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낮은 자기통제력은 1차 자료에서 충동성, 순간만족성, 위험추구성 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Grasmick et al., 1993), “나는 위험한 행동을 즐기는 편이다” 등의 여섯 문항을 사용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했다($\alpha=.650$).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2차 자료를 이용하여 위의 경비행과 중비행에 해당되는 비행을 저지른 비행친구가 있는지를 사용하였는데, 경비행친구는 흡연, 음주, 무단결석 경험의 친구가 있는지의 항목을, 중비행친구는 폭행, 절도, 강도의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는지의 항목을 사용하고, 각각 합산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는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유대변인들로서 부모와의 유대를 사용하기로 하는데,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해 갖는 애착 뿐만 아니라 부모의 애정을 포함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등의 여섯 문항을 질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토록 하였다(alpha=.859).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1차년도의 자료에서 이전의 비행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기로 하는데, 앞서 종속변수와 동일한 비행항목으로 경비행과 중비행을 각각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의 통제변인으로 성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기존연구에서는 성이 비행과 관련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IV.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에 앞서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를 보면 <표 1>에서와 같다. 부모와의 유대(T1)는 6에서 30까지의 범위에서 평균이 20.044로 조사대상자는 어느 정도 부모와의 유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자기통제력(T1)은 6-30범위에서 평균이 16.052로 응답자들은 자기통제력이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행을 저지른 비행친구(T2)는 0-3범위에서 .592를, 중비행을 저지른 비행친구(T2)는 .244로 나타났다. 이전 경비행의 경험(T1)은 0-3범위에서 평균이 .488이었고, 이전 중비행의 경험(T1)은 평균이 .214로 낮았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경비행 경험(T3)은 .533으로 다소 높았으나 중비행 경험(T3)은 .006으로 매우 낮았다.

<표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평균	표준편차	범위
부모유대(T1)	20.044	4.674	6-30
이전경비행(T1)	.488	.753	0-3
이전중비행(T1)	.214	.547	0-3
낮은자기통제(T1)	16.052	4.040	6-30
경비행친구(T2)	.592	.976	0-3
중비행친구(T2)	.244	.682	0-3
경비행(T3)	.533	.765	0-3
중비행(T3)	.006	.288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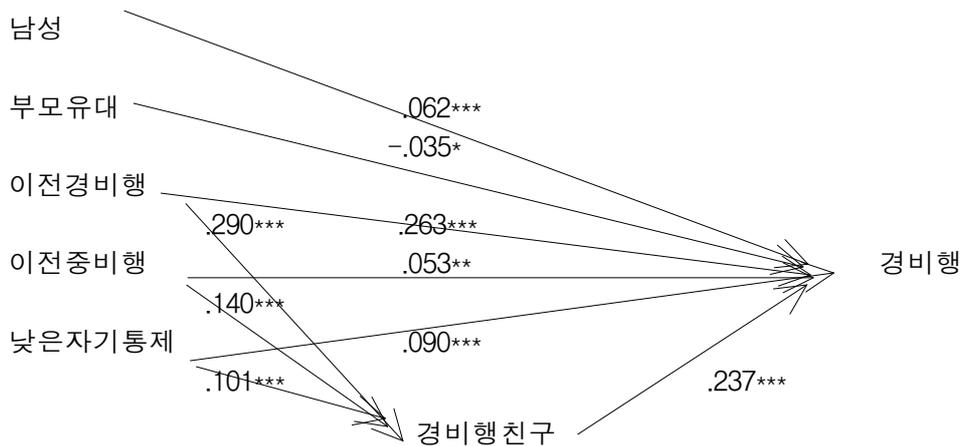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종속변인을 경비행과 중비행으로 각각 나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인이 경비행인 경우 <표 2-1>의 우선 모델 1의 결과와 모델 2의 결과에서 보듯이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큰 변화가 없이 유의미하며 그것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해 매개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낮은 자기통제력과 경비행친구와의 접촉 모두가 경비행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져 가설 1(일반이론)과 가설 2(발전이론)가 아닌 통합가설으로서의 가설 3이 지지되었다(그림 2-1). 그러나 베타값을 비교해보면 경비행친구의 영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 일반이론보다는 발전이론이 다소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은 예측과 달리 부(-)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냈는데, 이는 중비행친구와 사귀는 아이들은 주로 중비행은 저지르지만 사소한 경비행은 덜 저지른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 영향력은 $p < .05$ 수준이어서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다. 한편 통제변인으로서 이전의 비행은 $p < .001$ 수준에서, 부모와의 유대도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한편 모뎀과 통합론적 중도논의의 검증을 위해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모델 3의 결과를 보면 그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5-1과 가설 5-2 모두가 지지되지 못하였다.

<표 2-1> 청소년 경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n=3,449)

독립변인	종속변인 청 소 년 경 비 행					
	(1)		(2)		(3)	
	b	β	b	β	b	β
남 성	.097***	.064	.095***	.062	.094***	.061
부모유대	-.007*	-.040	-.006*	-.035	-.006*	-.035
이전경비행	.339***	.327	.272***	.263	.271***	.261
이전중비행	.103***	.073	.075**	.053	.077**	.054
낮은자기통제	.022**	.113	.017***	.090	.018***	.092
경비행친구			.187***	.237	.177***	.224
중비행친구			-.048*	-.042	-.032	-.028
낮자통*경친구					.007	.040
낮자통*중친구					-.010	-.040
R제곱	.178		.216		.217	
F	134.819***		116.115***		90.823***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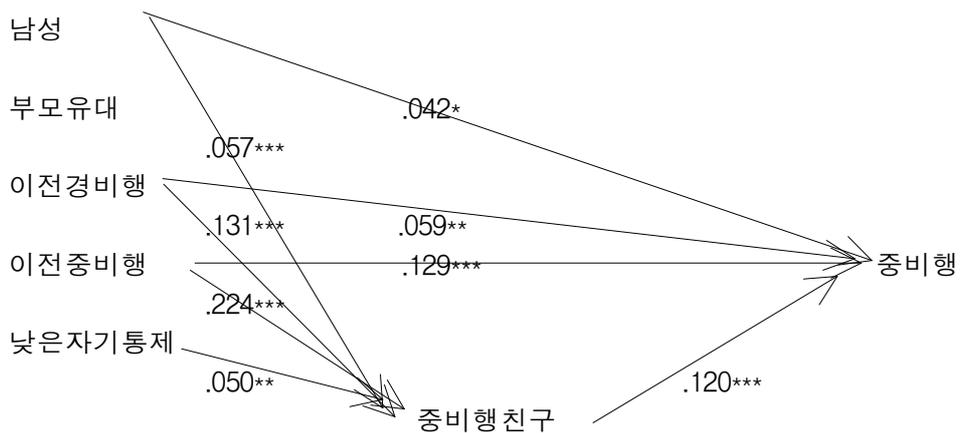
[그림 2-1] 청소년 경비행 경로모델의 분석결과

<표 2-2> 청소년 중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n=3449)

독립변인	종속변인 청 소 년 중 비 행					
	(1)		(2)		(3)	
	b	β	b	β	b	β
남 성	.028**	.049	.023*	.042	.023*	.041
부모유대	-.0002	-.004	-.0002	-.003	-.0001	-.002
이전경비행	.035***	.090	.022**	.059	.022**	.058
이전중비행	.080***	.151	.067***	.129	.068***	.130
낮은자기통제	.003*	.038	.002	.022	.002	.023
경비행친구			.011	.039	.008	.028
중비행친구			.051***	.120	.006***	.134
낮자통*경친구					.002	.035
낮자통*중친구					-.004	-.039
R제곱	.050		.071		.071	
F	32.991***		32.067***		25.274***	

*=p<.05; **=p<.01; ***=p<.001



[그림 2-2] 청소년 중비행 경로모델의 분석결과

중속변인이 중비행인 경우는 <표 2-2>와 [그림 2-2]에서 보듯이 모델 1의 결과와 모델 2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중비행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져 가설 1(일반이론)과 가설 3(통합이론)보다는 발전이론의 가설 2가 지지되었다. 통제변인으로서 이전의 비행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나 부모와의 유대는 경비행의 경우와 달리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아울러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위한 모델 3의 결과를 보면 그 상호작용효과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경비행친구는 정(+)적으로 $p < .10$ 수준에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중비행친구는 부(-)적으로 $p <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지만, 전체적으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5-1과 가설 5-2 모두가 지지되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경비행과 중비행 경우 모두에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유의미하여 중요한 설명요인이었으나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은 경비행의 경우는 직접적이었으나 중비행의 경우는 그 영향력이 비행친구에 의해 매개되고 직접적이지 못했다는 차이를 보였다. 즉 성장하면서의 사회환경을 중시한 발전이론의 논의는 중비행에서 더욱 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상호작용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모팃의 중도적 논의나 그 영향력이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작용할 것이라는 통합론적 중도논의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한편 모팃과 패터슨의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초기진입자와 후기진입자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에 앞서 먼저 <표 3>을 보면 1차년도에 총 3,449명을 기준으로 3차시기까지 비행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은 801명으로 23.2%이었고, 1차, 2차에는 비행을 안했다가 3차시기에 비행을 한 적이 있는 후기진입자는 694명(20.1%), 1차에 비행을 저질렀지만 3차에 비행을 중단한 초기진입중단청소년은 371명(10.8%), 1차에 비행을 저질렀고 3차에도 비행을 저지른 초기진입 지속비행자는 873명(25.3%), 그리고 그밖에 1차때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2차나 3차때에 적어도 비행을 저지른 기타범주는 710명(20.6%)이었다.

<표 3> 비행소년유형

유 형	명	%
비행경험없는청소년	801	23.2
후기진입비행청소년	694	20.1
초기진입중단청소년	371	10.8
초기진입지속청소년	873	25.3
기 타	710	20.6
총 계	3,449	100.0

먼저 초기진입자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해 첫 번째 유형인 비행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비교집단으로 하고 초기진입지속비행소년인 네 번째 유형을 합쳐 총 1,67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1>에서와 같다. 그 결과를 종속변인이 경비행일 때와 중비행일 때를 나누어 각각 살펴보면, 경비행인 경우에는 부모와의 유대, 낮은 자기통제력, 경비행친구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중비행인 경우에는 부모와의 유대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낮은 자기통제력은 $p < .05$ 수준에서, 경비행친구는 $p < .01$ 수준에서, 그리고 중비행친구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 모두가 중요할 것이라는 통합론적 논의가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특히 베타값을 보면 경비행이나 중비행 모두에서 낮은 자기통제력보다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더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기진입자의 경우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가설 4-1의 모퉁의 논의를 지지하지 못하는 결과이며, 그 결과가 중비행을 설명하는 경우에도 그렇다는 점에서 가설 6-1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이 결과는 비행친구의 영향력을 강조한 Patterson의 논의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4-1> 초기진입 청소년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n=1,674)

독립변인	종속변인 청 소 년 비 행			
	경비행		중비행	
	b	β	b	β
남 성	.0001	.000	.026	.040
부모유대	-.016***	-.089	.0002	.002
낮은자기통제	.042***	.206	.005*	.064
경비행친구	.344***	.432	.028**	.090
중비행친구	-.020	-.018	.080***	.192
R제곱	.295		.081	
F	135.009***		28.388***	

*=p<.05; **=p<.01; ***=p<.001

한편 후기진입자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해 첫 번째 유형인 비행경험이 없는 청소년과 후기진입비행소년인 두 번째 유형을 합친 총 1,49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2>에서와 같다. 그 결과를 종속변인이 경비행일 때와 중비행일 때를 나누어 각각 살펴보면, 경비행인 경우에는 부모와의 유대가 p<.05수준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은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중비행인 경우에는 부모와의 유대, 낮은 자기통제력, 비행친구와의 접촉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후기진입자의 경우 경비행에 있어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가설 4-1의 모팻의 논의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 결과가 경비행을 설명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점에서 가설 6-1이 지지되지 않는 것을 제시한다. 후기진입자가 중비행을 저지른 경우는 사례수가 적어 모든 변인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2> 후기진입 청소년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n=1,495)

독립변인	종속변인 청 소 년 비 행			
	경비행		중비행	
	b	β	b	β
남 성	.041	.040	.018*	.059
부모유대	-.008*	-.064	-.0005	-.013
낮은자기통제	.017***	.118	.001	.031
경비행친구	.048	.060	.005	.019
중비행친구	-.040	-.085	.020	.006
R제곱	.026		.006	
F	8.037***		1.783	

*=p<.05; **=p<.01; ***=p<.001

V. 결 론

이 연구는 일반이론과 발전이론, 그리고 모핏 등의 논의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과연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청소년비행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경비행과 중비행 모두에서 낮은 자기통제력보다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더 유의미하여 일반이론보다는 발전이론이 더 타당하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경비행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 모두가 직접적으로 유의미하여 통합론적 논의를 지지했으나 낮은 자기통제력보다는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더 컸고, 특히 중비행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비행친구에 의해 매개되고 직접적이지 못하여 발전이론의 논의가 더 잘 적용된다는 결과를 보였다. 즉 성장하면서의 사회환경을 중시한 발전이론의 논의는 중비행에서 더욱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팻의 중도적인 입장의 논의는 전체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상호작용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그렇지 못했고, 또한 초기진입자와 후기진입자를 구분한 경우에도 초기진입자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후기진입자의 경우는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모팻의 논의와 반대로, 초기진입자의 경우는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비행에서 낮은 자기통제력보다는 비행친구의 영향이 더 컸고, 후기진입자의 경우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위비행의 경비행에서 비행친구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낮은 자기통제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기통제력만을 강조한 일반이론의 주장과도 다른 결과이며, 또 비행친구와의 접촉만을 강조한 발전이론의 논의도, 또 두 입장을 모두 포함하여 설명하려는 모팻의 중도적 논의와도 다른 결과로서,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새로운 이론정립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경비행의 경우는 특히 후기에 진입하는 사소한 지위비행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유대나 낮은 자기통제력 때문에 유발되는 것으로 반드시 비행친구와 연계되지는 않으나, 초기진입자의 비행이나 전체적으로 중비행의 경우를 설명할 때에는 부모와의 유대나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작고 그보다 비행친구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후기에 비행을 시작한 아이는 반드시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전제로 하지는 않고 부모에 대한 반항과 호기심에서 비행을 저지르지만, 어려서부터 비행을 시작한 초기진입자는 비행친구와 만나 서로 의지가 되고 비행집단을 형성하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심각한 중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연구의 자료는 중학생 2학년을 1차 시점으로 조사한 것으로, 모팻이 주장한 초기진입 시점은 그보다 더 이르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모팻의 논의를 적절히 검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후기진입자의 경우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결과는 모팻의 논의와는 다른 것이다.

이 결과를 비행대처와 관련해서 보면 경비행과 중비행의 경우가 다르며, 또 초기진입자나 후기진입자나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점에서 유형별 전략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많은 발전이론가들의 연구결과에서처럼 이전의 과거비행이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비행은 어린 시기에 조기에 사전예방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자료의 문제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또 발전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비행친구 요인 하나만을 사용한 한계도 지닌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료를 이용한 보다 다양한 요인을 통한 종단적 분석연구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노성호 (2006). 비행친구와 비행행동의 인과성에 대한 검증. *형사정책연구* 17(4), pp.297-332.
- 민수홍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6), pp.27-47.
- 이경상, 김기현 (2006). 한국청소년 패널조사 IV.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성식 (1999). 비행친구와 비행과의 관계: 통합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0(1), pp.193-221.
- 이성식 (2001). 청소년비행에 있어 내적 성향론과 생애과정론의 논쟁에 관한 경험연구. *형사정책*13(2), pp.243-269.
- 이순래 (2005). 청소년비행의 발전양태에 관한 연구.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Akers, R.L.(1985).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3rd Edition, Belmont, CA: Wadsworth.
- Bartusch, D.J., Lynam, D., Moffitt, T.E., and Silva, P.(1997). Is age important? Testing a general versus a developmental theory of antisocial behavior. *Criminology*, 35, pp.13-48.
- Chapple, C.L.(2005). Self-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22, pp.89-106.
- Evans, T.D., Cullen, F.T., Burton, V.S., Dunaway, R.G., and Benson, M.L.(1997). The social consequences of self-control: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ology*, 35, pp.475-501.
- Gibbs, J.J., and Giever, D.(1995). Self-control and its manifesta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An empirical test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ustice Quarterly*, 12, pp.231-245.
- Gottfredson, M.R., and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G., Tittle, C.R., Burski, R.J., and Arneklev, B.K.(1993). Testing the

-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pp.5-29.
- Lipsey, M., and Derzon, J.(1998). Predictors of violent or serious delinquency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A synthesis of longitudinal research. In R. Loeber and D. Farrington (eds.),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s*. Thousand Oak, Calif.: Sage.
- Loeber, R., and LeBlank, M.(1990). Toward a developmental criminology. In M. Thorny and N. Morris(eds.), *Crime and Justice Vol 1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ongshore, D., Chang, E., Hsieh, S., and Messina, N.(2004). Self-control and social bonds: A combined control perspective on deviance. *Crime and Delinquency*, 50, pp.542-564.
- Matsueda, R., and Anderson, K.(1998). The dynamics of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t behavior. *Criminology*, Vol.36 No.2, pp.269-308.
- Moffitt, T.E.(1993). Adolescent-limited and life-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pp.674-701.
- Nagin, D.S., and Paternoster, R.(1993). Enduring individual differences and rational choice theories of crime. *Law and Society Review*, 3, pp.467-496.
- Nagin, D.S., Farrington, D.P., and Moffitt, T.E.(1995). Life-course trajectories of different types of offenders. *Criminology*, 33, pp.111-139.
- Paternoster, R., and Brame, R.(1997). Multiple routes to delinquency? A test of developmental and general theories of crime. *Criminology*, 35, pp.49-84.
- Patterson, G.R., DeBaryshe, B.D., and Ramsey, E.(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pp.329-335.
- Pratt, T.C., and Cullen, F.T.(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 pp.931-964.
- Sampson, R.J., and Laub, J.H.(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imons, R.L., Johnson, C., Conger, R.D., and and Lorenz, F.O.(1994). Two routes to delinquency: Differences between early and late starters in the impact of parenting and deviant peers. *Criminology*, Vol.32 No.2, pp.247-276.
- Simons, R.L., Johnson, C., Conger, R.D., and and Elder, C.(1998). A test of latent trait versus life-course perspectives on the atability of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Criminology*, 36, pp.217-243.
- Thornberry, T.P.(1987). Toward an interactiona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25, pp.863-891.
- Thornberry, T.P., Lizzote, A.J., Krohn, M.D., Farnworth, M., and Jang, S.J.(1994). Delinquent peers, belief, and delin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test of interactional theory. *Criminology*, 32, pp.47-83.
- War, M., and Stafford, M.(1991). The influence of delinquent peers: What they think or what they do? *Criminology*, 29, pp.851-866.
- Wood, P.B., Pfefferbaum, B., and Arneklev, B.J.(1993). Risk-taking and self-control: Social psychological correlates of delinquency.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16, pp.111-130.
- Wright, B.R., Capsi, A., and and Silva, P.A.(1999). Low self-control, social bonds, and crime: Social causation, social selection, or both? *Criminology*, 37, pp.479-514.

ABSTRACT

Low Self-Control, Delinquent Peers, and Juvenile Delinquency : A Test of Panel Data

Lee, Seong-Sik*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is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xplanatory fa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The effect of low self-control has also been tested with a considerable amount support. By testing the effects of low self-control and delinquent peers on delinquent behavior,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relative efficacy of a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developmental theory, and Moffitt's theory. Using KYPS data from 3,125, results support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low self-control on delinquency is mediated by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and its effect is stronger in explaining more serious major delinquency than minor delinquency. However, the effect of low self-control is directly significant in explaining minor delinquency. Contrary to Moffitt's view, this study reveals that low self-control is important in explaining an adolescent onset minor delinquent behavior, while affiliation with delinquent peers is important in explaining a childhood onset and persistent major delinquent behavior. However, the effect of prior delinquenc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policy implication of those results are discussed.

Key words : low self-control, delinquent peers, delinquency, developmental theory

투고일 : 5월 31일, 심사일 : 7월 21일, 심사완료일 : 8월 14일

* Soongsil University